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40 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광복70주년 특집 인간극장 <안데스의 사랑방 부부>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조선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5 청춘FC 허그리 일레븐(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00 2015 중흥 S-클래스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
2	00 우리말 겨우기 55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특선다큐(재)	05 내개야 폴록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네트워크현장 고강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00 광복70년 특별기획 슈퍼코리아의 꿈 제2편 튜튼 생활제초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꼬마돌도도 40 통일 전망대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아성일기(재) 20 TV 책을 더(재)	00 TV 유치원 콩다콩 30 별별가족(재) 35 동물의 세계 55 VJ특공대(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KBS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8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세계속의 이 대한민국 경제 100년 4부작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별난 며느리>	00 월화특별기획 <미세스 캅>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		15 우리동네 예능	15 PD수첩
12	30 아내가 뽀났(재)	35 독립영화관 <2015 여름특별판전>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15:15 내 친구 이서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시계마을 타기독!	20:50 세계대미기행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미술 담현대	<인도네시아 화산섬 자바를 가다>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대미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태백 산맥>
07:15 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임 <맛이란 무엇인가>
07:30 출몰! 슈퍼왕(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7:00 WHO-위국장(재)	23:35 광복 70년 특별기획 <학교 교육 백년사>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산다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25 지식채널e(재) <과학 특강>
08:20 두다다콩(재)	13:4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8:35 WHO-위인극장	13:5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45 꼬마버스 타요	
08:50 골디와 친구들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지피타스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09:35 이엽! 스페이스 정글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국한직업	

EBS플러스1

00:00 율리프스 <국어 I-일과개념>	12:10 율리프스 <국어 I-일과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일과개념>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
01:40 <문학-일과개념>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02:30 <미적분 I>	14:50 율리프스 <문학-일과개념>
03:20 <수학 I>	15:40 <미적분 II>
04:10 율리프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	16:30 <수학 I>
05:00 뉴탐스런 <물리 I>	17:20 율리프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06:00 <생명과학 I>	18:10 2016 N제 <국어B>
06:40 <동아시사>	19:10 <경제>
07:30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심주석의 수학 I>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	21:50 <문학A형>
11:00 <수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9급 소방안전직 시험대비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A.T 시험대비강좌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15일의 기적 <국어(3)(4)>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9:50 <수학(2)>	17:50 다큐 오늘
10:30 <영어(2)>	18:00 EBS TV중학 <국어(5)(6)>
11:10 <사회(2)>	18:40 <수학 3(상)>
11:50 <과학(2)>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집
13:10 15일의 기적 <국어(5)(6)>	20:50 EBS 기획시리즈
13:50 <수학(3)>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영어(3)>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등업산공 <수학 3(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음 7월 5일 丙寅)

48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60년생 적절할 시기에 정확히 실행해야 작용력이 크다. 72년생 압초가 있는 급류로 휩쓸려 가는 형상이다. 84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b>행운의 숫자 : 13, 58</b>	42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54년생 진담을 배면서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66년생 변수가 생겨서 곤혹스러워하는 형세이다. 78년생 입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18, 85</b>
49년생 함께 나아 갈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61년생 전반적인 짜임새를 이해해야 합리적인 인목이 생긴다. 73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85년생 원칙과 예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책이 아쉽다. <b>행운의 숫자 : 30, 52</b>	43년생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자. 55년생 알찬 결실을 잉태 하는 마당에 임하라. 67년생 손쉬운 자제가 절실히 요구 된다. 79년생 목적하는 바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난해졌다. <b>행운의 숫자 : 67, 26</b>
38년생 한계를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50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 가능하리라. 62년생 융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74년생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추운다. 86년생 나 타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b>행운의 숫자 : 07, 22</b>	44년생 표면적인 현상으로부터 판단한다면 돌아킬 수 없는 번고를 낳을 것이다. 56년생 망설임이 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68년생 불같은 기운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 80년생 합리적인 방언의 수립이 시급하다. <b>행운의 숫자 : 27, 34</b>
39년생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서 주변이 산만해지리라. 51년생 63년생 정해진 일이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75년생 뜻밖의 행운이 보인다. 87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행운의 숫자 : 48, 42</b>	45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57년생 진용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치밀한 구성을 해야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81년생 핵심 가치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b>행운의 숫자 : 35, 92</b>
40년생 기능을 충분히 해 줄 것이다. 52년생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일으키라. 64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76년생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유효하다. <b>행운의 숫자 : 54, 65</b>	46년생 낙낙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58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70년생 형편대로 처세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양 쪽의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겠다. <b>행운의 숫자 : 37, 63</b>
41년생 집착하지 않는 것이 모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는 길이다. 53년생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65년생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간단한 문제이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09, 44</b>	47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59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을 이룰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71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83년생 일반적응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써야 무리가 없다. <b>행운의 숫자 : 81, 87</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시간은 삶의 선물 마음껏 누리야죠”

‘뷰티 인사이트’로 38년만에 복귀한 문숙



1970년대 중반에 활약하다가 출연 영화계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은막의 스타 문숙(61·사진)이 3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복귀작인 ‘뷰티 인사이트’ 개봉을 꼭 1주일 앞둔 13일 문숙은 수십 년 공백이 무색하게 여전히 이국적인 외모와 시원한 미소를 자랑하는 ‘천생 여배우’의 모습으로 인터뷰 장소인 종로구 팔판동 한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배우의 자태는 세월과 관계없는 듯하다고 첫 마디를 건네자 문숙은 “미국에서 지내던 젊은 시절에는 해변에 가도 남들처럼 누워 있지 못했다”며 웃었다.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않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배우를 하던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지’ 했던 거죠. 한국에서 배우 활동을 한 시간이 7년인데 그게 나라의 사람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에 한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는 연기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 TBC 드라마 ‘세나의 집’ 주연으로 데뷔했다.

“트레이닝만 계속 받을 때 서미경(미스 롯데 출신 배우)씨가 그 드라마 주연을 하다가 베트남 워문 공연을 갔다가 못 돌아오는 바람에 녹화 ‘핑크’를 낸 거예요. 갑자기 ‘어어?’ 하면서 제가 투입된 거죠. 어린 나이에 집과 촬영장만 오가게 됐으니 저는 그때 포장마차 한방을 못 가봤어요. 멍개라는 걸 먹어본 게 이번이 한국 들어와서 처음이니까요. (웃음)”

영화에서도 이만희 감독의 ‘태양 님은 소녀’(1974)를 시작으로 처음부터 주연만 맡았다.

“강부자·신성일 선생님 같은 분들 연기를 할 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는 것보다... 이번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강부자 선생님은 다시 만나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고 눈물을 글썽하시더라고요.”

이후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펼쳐졌다. 그는 ‘태양 님은 소녀’에 이어 ‘삼각의 함정’(1974), ‘삼포 가는 길’(1975)에 잇따라 출연한 이만희 감독의 ‘뮤츠’였다.

작품 밖에서도 사랑에 빠진 둘은 23살의 나이 차를 뛰어넘어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배우 문숙은 이만희라는 영화감독을 ‘거장이라는 말이 부족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천재적이기도 했지만,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을 때도 모든 삶을 영화로 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은 삶을 볼 때 다 영화의 장면 장면으로 봐요. 사람을 볼 때는 다 자기 배우로 보고요. 한 사람이 가진 캐릭터, 그



“의사소통의 중요성 아빠 되고 깨달았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블랙가스펠2’ 선보인 양동근

보니 삶과 생각, 음악에 대한 접근 같은 토양이 다르더라고요. 가사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요. 사람을 밝은 곳으로 계속 끄집어 나오게 하는 힘 같은 게 음악에서 느껴져요.”

그는 언제부터인가 ‘소통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남들이 다 잘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품에서 연기를 다 했으니 그걸로 다 된 거지. 인터뷰에서 말로 될 설명해야 하나 싶었고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는)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듣는 거더라고요. 진심을 잘 전달하려면 대화를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에 결혼과 출산 등 개인적인 성장도 포함된다. 음악을 하면서도, 연기를 하면서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 일은 영향을 컸다고 했다. 그는 2013년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으며 곧 둘째 아이도 탄생한다.

“영향이 엄청 많죠. ‘싱글 음악’이란 ‘유부남 음악’은 달라고. (웃음) 예전에는 욕설이 난무하고 퇴폐적인 섹 음악을 했는데 이제 집안의 가정이 된 거니까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아빠가 되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더라고요. 물론 예전의 음악도 계속 해야 해요. 과거를 부정하면 제 인생이 없게 되는 거니까요. 아빠가 되고 처음에는 예전 모습을 버리고 탈바꿈하려 했는데, 이제는 나라고 하는 넓은 대야에 그 모습들을 다 싸잡아 낚자 생각해요.”

연기도 마찬가지다. 양동근의 연기는 ‘기교’와는 거리가 있다. 자연스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에 가깝다.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여러 작품을 했지만, ‘네 멋대로 해라’에서 그가 보여준 살아 있는 연기는 아직도 많은 팬의 뇌리에 ‘전설’처럼 남아 있다.

“연기란 10대, 20대, 30대에 하는 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살아봐야 진정한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경험하지 않고서 연기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게 연기 폭을 넓히는 방법이에요.”

양동근은 내달 막을 올리는 뮤지컬 ‘인더하이스’ 연습에 한창이다. 뮤지컬은 군 복무 중에 했던 것을 제외하고 첫 도전이라고 한다.

“뮤지컬은 예술가로서 창작역인 것 같아요.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랩도 해요. 누구나 저를 만나면 ‘연기가 좋아요, 음악이 좋아요?’, ‘배우예요, 가수예요?’라고 물었거든요. 이제 그 질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연습뉴스